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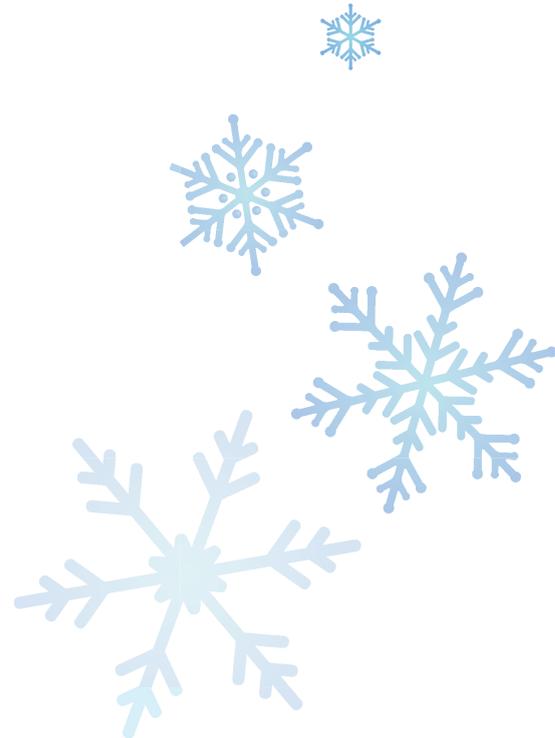
효원 도서관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Newsletter

도서관소식지

지구만한 행복도 순간 속에 담겨 있다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는 데 평생이 걸렸어.
 그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너무 미래에만 매달려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
 물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긴 해. 누구나 미래를 생각할 테니.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네.
 하지만 잘 듣게나.
 그저 순간 속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네.
 또 지금 바로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역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나는 이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네.
 내게 평화를 주기 때문이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게 되지.
 그곳은 그다지 평화롭지 않은 세상 속에서도
 평온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라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사실을 60대가 아닌 30대에 알았더라면 하는 거야.
 그랬다면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삶이 몇 십 년은 더 있었을 텐데
 이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네.



12월 이달의 책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칼 필레머, 토네이도) 中



PNUL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지식의 충전소,
 영혼의 치유소,
 부산대학교도서관

* 이 지면은 향후 도서관 발전기금을 출연한 개인이나 기관을 위한 광고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고협찬을 원하시는 분은 기획전산팀 담당자(051-510-1810)에게 문의 바랍니다.



똑똑, 문을 열자

iCOMMONS | 제1도서관 1층 |
iCOMMONS는 학술정보검색, 미디어시청, 어학학습 등 교육과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매체의 멀티미디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C O N T E N T S

- 04 칼럼 나의 책사랑 편력기
- 06 특집 도서관과 함께하는 '저자와의 만남'
- 08 도서관, 길을 찾다 도서관을 열어나가는 사람들
겨울방학, 즐거움이 두 배가 되는 도서관 활용법
- 10 도서관, 서가를 들여다보다 북한자료, 세상 밖으로 나오다
- 12 도서관, 책을 이야기하다 2012 올해의 책 한 눈에 읽기
- 14 시선집중
- 15 도서관 후원

발행처 부산대학교도서관 발행인 이제한 발행일 2012. 12. 18.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2 | 051-510-1800 | <http://pulip.pusan.ac.kr>
편집 부산대학교도서관 기획전산팀 | 051-510-1810 | library@pusan.ac.kr
디자인 디자인웍스 | 051-248-1513

〈Library Space〉가 〈효원in도서관〉으로
2010년부터 발행되었던 〈Library Space〉가 부산대학교도서관의 소식과 내용을 더욱더 알차게 전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효원in도서관〉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효원in도서관〉이 되기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나의 책사랑 편력기

책을 사랑하는 방식에는
정답이 없다고 나는 믿는다.
어떤 책이든 좋으니 자신의 방식대로
책과 만나고 씨름하면서
자신만의 인생담을 만들어보시라.
주변 일상의 좁은 세상을 벗어나
훨씬 풍부한 세상과 접할 수 있으리니.



취향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 남들이 뭐라고 평가하기 참 어렵다. 그런데 책은 다른 '잡스런' 취미, 가령 무협지나 게임에 비해 꽤 고상한 취미로 인정해 준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취향이 유별난 게 아니라 지속하고 개념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기에 딱 좋으니,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등의 알리바이를 꾸며내거나 약간의 죄의식은 느껴야 정상이다.

취미로 책을 사랑하는 방식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책 수집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맘에 드는 책은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들여놓아야 직성이 풀린다. 꼭 즐겨 읽는 책 뿐 아니라 회귀한 책, 언젠가는 읽어봐야지 하는 책도 수집대상이다.

둘째는 책 읽는 행위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학생 권장도서 목록에는 한결같이 유명하지만 읽기에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한 책들로 채워져 있다. 설사 꼭 참고 끝까지 읽어내도 제대로 내용을 소화했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이나 고행 자체가 고귀한 행위라고 인정해준다.

셋째는 책 자체보다는 책이 주는 즐거움이나 삶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는 책사랑 방식이다. 책을 통해 삶이 확 바뀌지는 못했더라도 맛있는 음식이나 게임처럼 책에 몰입할 수 있으면 이 경지에 속한다고 해도 좋다.

이 세 가지는 한때 책을 사랑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면 거치는 경험의 단계와 같다. 모든 경험담에는 달콤한 기억 뿐 아니라 우여곡절과 고통에 가까운 기억도 섞여있기 마련이다. 단지 책읽기에는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 모두 미화

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나 역시 책과 인연을 맺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세계를 모두 넘나들며 애증관계를 쌓은 것 같다.

고백컨대, 내가 책을 진짜 사랑하며 책읽기에 빠진 시기는 그리 길지 않았다. 내가 중학생이던 시절만 해도 잘 사는 친구 집이나 도서관에 가야 책을 만날 수 있었다. 당시 나에게는 책 자체가 일상을 넘어선 별 세계 같았다.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아무 책이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읽었다. 이중에는 고전 반열의 문학책도 있지만, 한자투성이의 <삼국지연의>나, 와룡생의 무협소설, 저자도 불분명한 청춘소설 등 정말 다양했다. 새벽하늘이 흰해질 무렵 마지막 책장을 덮고 나면 감동과 뿌듯함이 밀려오곤 했다. 직업상 평생 책을 가까이 하며 살면서도 가슴으로 책을 사랑한 시간은 이 때뿐이었지 싶다.

책에 대한 즐거운 기억은 고등학생이 되면서 끝이 났고, 책에 다시 눈을 돌리게 된 것은 대학신입생이 되고나서다. 하지만 당시의 책 읽기는 즐거움보다는 애송이 지식인으로 행세하는 데 필수적인 숙제와 같았다. 신입생 때 특히 기억나는 책은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다. 스스로 책읽기를 독려하기 위해 룸메이트와 내기까지 했지만, 이 책은 결국 끝까지 읽는 데 실패했다. 분량이 엄청날 뿐 아니라 너무 재미가 없었다. 당시엔 사회과학이나 철학책이 특히 유행했는데, 특유의 딱딱하고 어려운 문체가 거슬렸지만 나도 점차 익숙해졌다. 하지만 10대 시절처럼 책 읽기의 감흥은 더 이상 없었다. 그 대신 책을 수집하는 데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다. 청계천 책방

골목에서 시작해 변두리 헌책방에까지 이르는 책방순례가 새로운 습관이자 취미로 굳어졌다. 덕분에 내 방은 역사, 철학, 사회과학 분야의 고전과 희귀 도서가 넘쳐나는 창고로 변했다. 책을 읽기는 했으나 읽기보다는 책 자체에 더 애착을 느끼고, 보물찾기의 즐거움에 탐닉한 시기였다.

본교에 부임한 후에는 주로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책읽기의 즐거움과 더 멀어졌다. 솔직히 책이란 즐거움이나 보람보다는 언젠가는 갚아야할 채권과 같았다. 나는 가끔 길게 늘어난 빚쟁이 행렬 보듯 서가를 뿔뿔히 쳐다보곤 했다.

이렇다보니, 삶의 전기가 된 책이라든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말문이 막힌다. 솔직히 지금도 나는 책읽기의 감동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 먼 세상 사람의 말처럼 별로 공감에 안 간다. 나의 책 편력기에는 극적이고 그럴듯한 스토리텔링의 요소가 빠진 셈이다. 음식으로 치면 나의 책 취향은 유별난 요리라기보다는 평범하지만 골고루 잘 차려진 백반에 가깝다.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 수많은 책에서 받은 작은 감화와 지식들이 지금의 나를 형성하는 자양분이 되었다고 나는 믿는다.

책에 대한 즐거운 옛 기억이 조금씩 살아난 것은 역설적으로 책을 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동안 집이나 연구실에 밀린 방학숙제처럼 쌓여있던 책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정리하기 시작해 수 천 권을 들어냈다. 이와 더불어 의무 독서목록 같은 데 대한 집착은 버리고, 전문서적 역시 책 육심을 과감히 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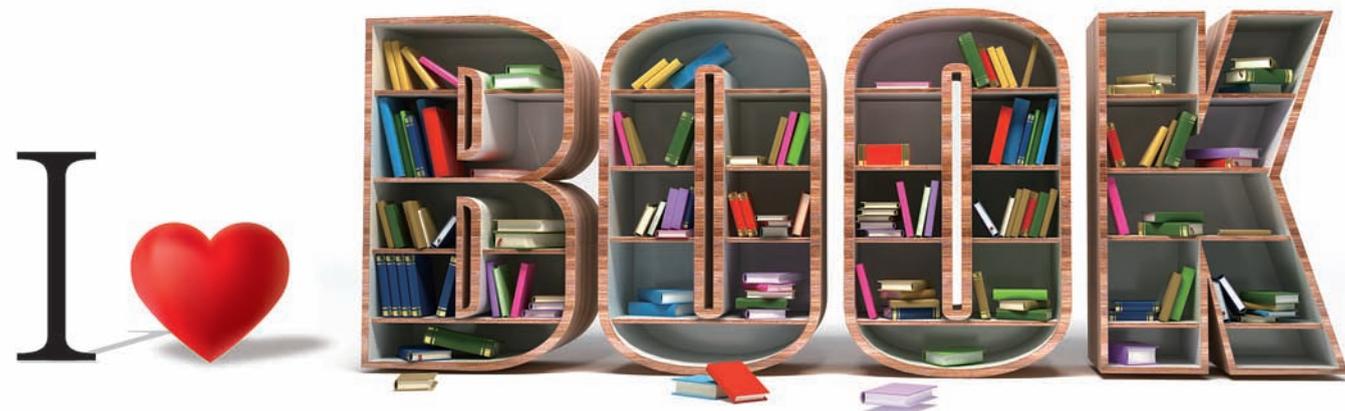
오래 잊고 지낸 '잡서' 읽기를 이 무렵 우연한 계기로 다시 시작했다. 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그리섬의 법정 스릴러 소설을 사서 비행기 안에서 심심풀이로 읽었는데, 너무 재미있었다. '외도성' 독서는 곧 미술사, 여행서, 대중소설 등 다양한 취미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이를 통해 책읽기의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었다. 묘하게 책 수집과 의무적인 독서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나니 책에 대한 애뜻한 느낌이 다시 살아났다.

지름길이 아니라 느긋하게 돌아서가기, 느리게 걷기와 같은 삶의 태도가 책읽기에도 필요하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여전히 '재미없는' 전문서적을 사들이고 직업적인 독서와 글쓰기에 매달리며 산다. 하지만 전문영역과 무관한 엉뚱한 책, 대중소설이나 무협지, 심지어 만화 조차도 고전 목록의 반열에 오른 책만큼 삶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전자저널과 e-북 예찬론자이지만, 빛바랜 고서 향기도 여전히 사랑한다. 종이와 인쇄가 아니라 지식에 대한 애정이 우선해야 한다고 믿지만, 종이 책이 주는 물리적 감촉과 존재감도 좋아한다. 책이 사라진다고 아우성치는 시대에 이러한 다양함이야말로 책읽기의 경험을 더 풍부하게 해준다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책을 사랑하는 방식도, 책과 만나는 경로도 다를 수밖에 없으며, 책을 사랑하는 방식에는 정답이 없다고 나는 믿는다. 어떤 책이든 좋으니 자신의 방식대로 책과 만나고 씨름하면서 자신만의 인생담을 만들어보시라. 주변 일상의 좁은 세상을 벗어나 훨씬 풍부한 세상과 접할 수 있으리니. 어떤 형태로든 책을 만나 좌충우돌하면서 경험과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가다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인간적으로 더 성숙해져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 지름길이 아니라
느긋하게 돌아서가기,
느리게 걷기와 같은
삶의 태도가
책읽기에도 필요하다고
나는 믿는다. 」



책 읽는 대학, 책 읽는 효원인 도서관과 함께하는 '저자와의 만남'

2012년 2학기 도서관과 함께하는 '저자와의 만남' 행사가 학내 구성원, 지역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0월 31일, 11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제1도서관 3층 북카페에서 열렸다. 10월 31일에는 배병삼 교수(영산대학교 교양학부)를 초청하여 '논어, 사람의 길을 열다'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으며, 11월 15일에는 권영숙 교수(부산대학교 의류학과)가 '웃습 사이로 비친 조선시대 여인의 침선문화와 인성교육'이란 주제로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10. 31. 만남, 첫 번째

영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배병삼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근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문명의 풀무집 『논어』,
『논어』에서 '과거 속의 미래'를 발견해 보는 시간.
『논어』에 관한 저술로 널리 알려진
배병삼 교수가 논어를 통한
사람의 길을 '함께' 열어보기 위해
우리 도서관을 찾았다.

두근두근. 내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나의 멘토와도 같은 책의 저자가 우리 학교 도서관에 온다면? 지난 10월 31일 내가 평소 애 보물처럼 여기는 책을 쓰신 분과 그 멋진 만남을 함께하는 행운을 잡았다. 내가 평소 어디가 잘나서 요즘 친구들이 읽기 꺼려하고 머리 아파하는 고전을 탐독하게 되었지만은 이것은 모두 배병삼 교수님 덕분이다. 딱 내 수준에 맞게 친절하게 고전을 풀어썬주신 『논어, 사람의 길을 열다』에 나는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었다. 교수님은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계셔서 젊은 사람들을 잘 알고 계셨다. 우리가 방황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중 가장 걱정하는 것은 돈벌이, 즉, 어떻게 하면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가 아닐까. 그런데 교수님은 논어의 이런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다. "자리(位)가 없음을 근심하지 말고, 서게(立)되는 방법을 근심하여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알 수 있는 길을 구하여라." 즉, 쉽게 말하자면(직설적인 교수님 표현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나 이리 꺾떡, 저리 꺾떡, 여기 저기 꺾떡거리지 말고 네 중심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내 중심이 없이 선택할 경우에 길게 봐야 10년에서 15년 뒤 퇴사할 때쯤 뒤늦게 인생으로부터 통렬한 뒤통수를 맞게 되는 때가 더 아프다는 것이다. 퇴사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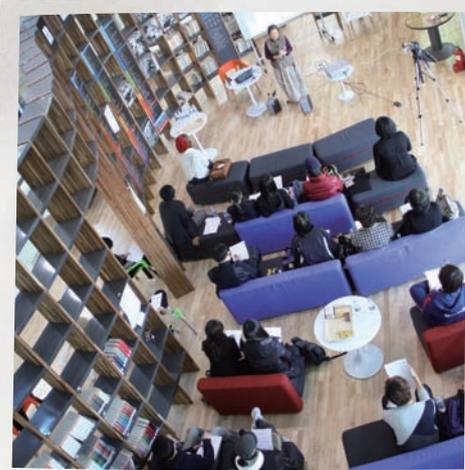
살아가야 할 인생이 40년이나 더 남았는데 그때까지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 놓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다. 교수님은 우리 대학생들에게 지우학(志于學)을 말씀하셨다. 이것은 배움에 뜻을 둔다는 말이기도 하면서 지(志)의 의미를 풀어보면 본래 도끼를 뜻하는 사(士)와 심장을 뜻하는 심(心)이 합쳐져 심장위에 날선 도끼를 올린다는 뜻이다. 즉, 자신의 심장위에 도끼를 얹고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심장이 떨릴 정도로 명확하고 단호하게 그 길을 자신에게 물으라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길을 확정하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시대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위태롭다. 비정규직, 취업난 등 여기저기서 두려움이 몰려온다. 그러나 이런 매일수룩 자신을 찾지 않으면 더 위태롭다. 대학생의 시기는 새가 둥지를 박차고 공중으로 날아오르게끔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과정 중에 이미 성공적으로 날아오른 사람도 있고, 아직 더 꼼꼼히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는 선택의 그 순간은 반드시 온다. 날선 도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자. (박소희 불어불문학과 3)

배병삼 교수님은 88만원 세대, 피카소, 스티븐 잡스 등 익숙한 이슈를 이용하여 논어라는 고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았던 공자의 삶을 통해, 사회나 개인의 탓을 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와의 만남'이라는 자리는 참 매력적입니다. 책 뒤에서 점점 거대해지던 작가라는 존재를 직접 눈과 귀로 확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가 차가운 활자를 넘어 작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승한 나노소재공학과 3)

역시 부산대학은 좀 다릅니다. 저자 초청 특강의 경우, 대부분 저자의 독화(monologue)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대학교도서관에서는 청중들의 질문이 저의 강연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 까닭은, 저는 옛날 논어이야기를 하는데, 질문자들은 오늘 자기 삶 속에서 공자 말씀의 의미와 <논어> 독서의 의미를 캐묻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현실과 장래가 참으로 절절하게 묻어있는 질문인지라, 저의 답변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자평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중들이 그 해당 책을 깊이 읽는 과정이 우선된다면, 매우 뜨겁고 치열한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배병삼 교수)

11. 15. 만남, 두 번째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권영숙



조선시대 침선문화 속에 깃든 예술적 조형미,
이러한 침선문화 활동을 통해 조선시대 여인의
품성과 인성, 교육적 효과성을 살펴보고,
오늘날 여성문화 활동과 어떻게 다른지,
향후 각박한 미래 사회와는
어떻게 연계돼야 하는지
다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번 강의의 핵심은 각자에게 부여 된 전공분야나 전공별로 주어질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가치추구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하여,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에 있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었던 '침선'이라는 생활 문화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즉, 오늘날 가정과 사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다각화 된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서로 고민해 보고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 복잡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 가는 현대 여성들의 진정한 삶의 가치와 여성성에 대해 서로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자 한 것이지요. 참여대상 학생들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모여든 공간이라 우선 감성적으로 편안하고 침착한 분위기를 유발시킬 수가 있었어요. 도서관의 분위기 또한 바쁜 삶의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적 특성을 갖추고,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던 점도 좋았습니다. (권영숙 교수)

2시간 전후의 강연은 기대 이상으로 정말 좋았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딱딱한 강연이 아니라 최근의 여러 시안까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강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병삼 교수님의 강연은 질의응답시간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몇 번 더 강연을 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권영숙 교수님의 강연도 다음에는 매듭 실습 같은 걸 같이 해봤으면 좋겠더군요. 2시간이 너무 짧아 아쉬웠습니다. 이런 강연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앞으로도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더 많은 홍보를 통해 참석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수민 지역주민)

2012년 상반기 『조선청년 안토니오 코레아, 루벤스를 만나다』의 저자 광차섭(사학과) 교수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철학, 영화를 캐스팅하다』의 저자 이왕주(윤리교육과) 교수를 비롯, 이번에 초청된 배병삼 교수와 권영숙 교수까지 도서관에서는 저자와 독자가 함께 공감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람이 있고, 책이 있고, 함께 이야기 하는 그 자리에, 2013년 효원인 여러분을 초대한다.

도서관을 열어가는 사람들

두 번째 만남, 자료조직팀

도서관에 입수된 자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있다. 물리적 형태의 자료에 고유한 주소를 부여하여, 이용자가 자료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가 가지는 특성과 내용을 일정한 체계에 따라 가공하는 이곳은, 도서관 자료조직실이다.

01 자료조직팀은 어떤 일을 하나요?

자료개발팀에서 등록 인계된 자료를 주제 카테고리 분류, 편목, 장비작업을 통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편리하게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류, 편목된 목록은 이용자와 자료를 매개하는 검색 도구이면서, 도서관의 평가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조직팀에서는 목록데이터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는 한편, 희망도서와 교재 등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학술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시간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서관 모든 자료는 **자료조직팀**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다

02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일이 진행되나요?

자료인수

자료개발실에서 선정·구입하여 등록 완료된 자료를 원부단위로 실물 및 데이터 인수

서지DB 구축

- **복본조사** : 소장자료 중 복본자료(저자, 서명, 출판사별) 확인 및 추가
- **서지데이터 반입** : KERIS, LC, OCLC 등
- **분류(주제분석)** : ITSMARC, Webcat 등 사이트 활용
- **편목작업** : 목록규칙과 정리내규에 의한 서지 사항 입력

구축DB KERIS 전송작업

원부단위별 KERIS종합목록 업로드

장비작업

레이블 출력 및 부착, 간략목록 출력, 단위별 원부 출력

자료인계

주제관별, 간략목록과 함께 실물자료 및 데이터 인계

03 업무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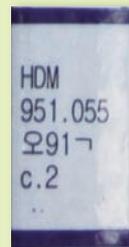
자료조직팀의 업무는 정해진 분류표와 표준화된 목록 규칙에 근거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 주제를 어떤 관점에서 또는 어떤 측면에서 다루는가에 따라 해당주제의 분류가 달라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간혹 자료를 신청한 이용자가 원하는 주제관에 자료가 비치되지 않았다고 어떤 근거로 자료를 분류했느냐는 항의성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용자에게는 생소한 DDC분류 표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할 때 가장 난감하기도 합니다.

04 아직 정리중인 자료가 급하게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입수된 자료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정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여 소장 상태가 정리중인 자료는 언제든지 '우선정리'를 신청하시면, 바로 정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내서 : 510-1823, 서양서 : 510-1808
- **홈페이지 이용**
도서관 홈페이지(<http://pulip.pusan.ac.kr>)
→ Ask a librarian(사서에게 문의하기)
- **직접방문** : 제1도서관 1층(구관) 자료조직팀

학생들에게 주는 Tip!



모든 도서는 입수, 등록, 정리를 거쳐 자료실의 서가에 배열되며, 도서의 책등 하단에는 다음 예와 같은 레이블이 부착되어 배열된 서가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책등 레이블의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HDM 별치기호 자료의 주제나 형태, 위치를 구별하기 위해 자료에 부여되는 기호

951.055 분류기호 모든 지식정보에 대한 주제를 체계화하여 십진분류로 표현한 숫자로, 유사한 주제의 자료를 인접번호에서 찾을 수 있음

오917 도서기호 같은 분류기호 아래에서 각 자료를 개별화하되, 동일 저자의 저서를 한곳에 모으도록 부여하고 있음

c.2 권호 및 복본(c) 표시 다권본 자료의 각 권에 대한 권호와 연도 그리고 복본을 구분하기 위해 표시

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급하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1도서관 1층 자료조직팀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은 여러분을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겨울방학, 즐거움이 두 배가 되는 도서관 활용법



올 겨울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줄 영화 한편 보고 싶으신가요? 매달 새롭게 나오는 잡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보고 싶으신가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영화서비스와 전자잡지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이번 겨울방학은 알찬 정보로 즐거움이 두 배가 될 거예요!



온라인 영화를 즐기다 Movie in Library

- 극장 개봉작 또는 DVD 출시작 등 국내외 최신 영화 제공
- 매월 10여 편의 DVD 출시 신규작 업데이트
- 기숙사에서는 유선랜을 통한 이용 불가(교내 네트워크망이 아님)
- 교내(기숙사 제외) 어느 곳에서나 도서관의 영화서비스 이용 가능 단, 무선랜일 경우 PNU-WLAN과 PNU-NOTEBOOK만 이용 가능

이용방법

1. 도서관 홈페이지(<http://pulip.pusan.ac.kr>) > 도서관안내 > 자료 이용안내 > 온라인 영화/잡지 이용 > Movie in Library
2. 영화서비스 프로그램 설치
3. 설치된 CINE-ARK 아이콘을 실행하여 영화서비스 이용

잡지, 이제 화면으로 읽자! 도서관 모아진 전자잡지 서비스

도서관에서는 국내에서 발간되는 분야별 신간 및 과월호 잡지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모아진 전자잡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내·외 어디서나 자유롭게 열람하세요!

- 매경 ECONOMY, 여성동아, 무비위크 등 270여 종의 다양한 잡지 열람가능
- 목차와 미리보기를 통한 빠른 잡지 기사 열람(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
- 잡지 기사 스크랩 및 메일링 기능 제공

시사/경제 매경 ECONOMY, 마·위크, 소비자시대 등 컴퓨터/인터넷 컴퓨터월드, 월간 앤,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등 산업/기술/과학 농경과 원예, 월간 환경, 건축세계 등 문화/예술/종교 무비위크, 음악저널, 더뮤지컬, 문학세계 등 교육/외국어/문학 이동문예, 마대입시, NHK 일본어 등 교양/생활/패션 웰빙라이프, 이허우징, 인테리어월드 등 취미/오락/여행/스포츠 여행스케쳐, 월간 산, 골프매거진코리아 등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http://pulip.pusan.ac.kr>) > 도서관안내 > 자료 이용안내 > 온라인 영화/잡지 이용 > 온라인 잡지

문의 | 도서관 기획전산팀 051-510-1832



부산대학교도서관 북한자료전시회

북한자료 세상 밖으로 나오다

서고에 있던 북한자료가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우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북한자료 중 역사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북한자료 100여 점을 선별하여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제1도서관 1층 로비에서 '북한자료, 세상 밖으로 나오다' 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출판물을 통한 북한사회의 담론 탐색, 북한의 문화예술 및 역사 관련 자료 전시, 북한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전시자료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조선왕조실록을 국역한 '리조실록'과 1945년에 창간된 당중앙위원회기관지 '로동신문', 북한에서 발행되는 유일한 대중교양 잡지 '천리마' 등이 있으며, 북한 최초의 예술영화인 1946년작 '내고향'(김승구 극본, 강흥식 연출)부터 비교적 최근 제작된 '한 녀학생의 일기'(안준보 극본, 장인학 연출, 2006년작) 등의 영상물도 소개되었다.

부산대는 1972년부터 특수자료실(현 북한자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출판된 단행본 2,600여 권과 '로동신문'을 포함한 다양한 연속간행물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북한 출판문화 현황과 북한자료의 민족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부산대학교도서관을 재발견하는 장(場)으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로동신문 |

1945. 11. 1. 창간, 당중앙위원회기관지, 매일 6면 150만부 발간

창간 당시는 '정로'라는 제호로 창간되었다가 같은 해 9월에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북한 언론의 '총참모부'라고 지칭되는 로동신문은 북한의 대내외의 주요 현안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론이나 사실 등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공식 대변하는 대표적인 신문이다.

| 김일성저작집 |

1979년 4월부터 1997년 2월까지, 총47권의 국판으로 출판되었다. 총47권 중 44권까지는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7월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이후 45권부터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출판되고 있다. 기존 노작들과 함께 출판되지 않은 새로운 노작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으며, 김일성의 활동과 관련한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다.



| 리조실록 |

조선왕조실록을 국역한 '리조실록'은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가 1954년부터 작업에 착수하여 37년간 국가적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1990년에 완간한 것으로 당시 국학, 민족문화, 민족문제 관련 연구자들에게 비교자료로서의 가치는 물론 당시의 미진한 국역 사업에 커다란 자극제가 되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1992년 8월, 조선왕조실록이 북한에서 '리조실록'으로 완역된 것을 국내 최초로 구입하여 특수자료실에 비치하였다.



| 천리마 |

1959. 1. 창간, 대중교양지, 예술종합출판사 편 북한에서 발행되는 유일한 대중교양 잡지이다. 1959년 초 천리마운동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주민들의 공산주의 교양에 이바지하고, 당의 노선과 정책, 특히 수시로 제기되는 시책을 선전하며, 그 관철을 위한 주민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주민들이 사회주의 노력경쟁 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독려하기 위하여 발간하고 있다.



| 피바다 |

원제가 '혈해인 혁명가극' '피바다'는 1971년 고전작품인 '피바다'를 가극으로 옮긴 것으로 모든 혁명가극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혁명가극을 대표하고 있다. 혁명가극 피바다의 창조는 '피바다'식이라는 가극 형식을 탄생시켰으며, 이후 혁명가극의 표본이 되었다. '피바다'는 1930년대 일제하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던 우리 민족의 민족적, 계급적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된 역사적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



북한영화 함께 보기

도라지 꽃 이춘구 극본 | 조경순 연출 | 1987년작

깊은 산골마을 벽계리를 반백이 된 박원봉과 그의 아들 박세룡이 찾아 간다. 박원봉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아들을 데리고 27년 만에 고향을 찾아오는 길에 산 중턱에서 아들이 캐들고 온 도라지꽃을 본 순간 원봉은 고향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진송림을 생각하는데...

한 녀학생의 일기 안준보 극본 | 장인학 연출 | 2006년작

중학교 졸업을 앞둔 수련은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에 사는 것이 소원이다. 하지만 과학탐구를 위해 집에 거의 오지 않는 과학자 아버지(산영)와 그 남편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과학원 사서 어머니(정란)로 인해 집안 살림이 나아지는 것이 없다. 수련은 아버지에 대한 야속함으로 새 담임선생님께 아버지가 없다고 말해 어머니께 꾸중을 듣기도 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밀사 신상옥 극본 | 최은희 연출 | 1984년작

일제의 강압으로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이의 부당성을 폭로하기 위해,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의 밀사로 파견된 이준 열사의 애국활동을 그린 영화

금강산으로 가자 리희참 극본 | 박상복 연출 | 1986년작

의학연구사인 연희와 식료연구사인 동수는 금강산에 약재연구로 우연히 같이 가게 된다. 연희는 찾고자하는 약초가 없다고 포기하고 하산을 하려 하자 동수는 우리강산에는 우리가 찾는 약초가 있음을 믿고 연희가 찾는 성분의 약초를 찾아준다.

부산대학교도서관 북한자료실은 제2도서관 3층 보존서고 내에 있습니다.

- 북한자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북한자료는 '특수자료'로 취급되어 폐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내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북한자료는 전임강사 이상 교수 및 교직원에게 한하여 관외대출이 가능합니다.

| 이용절차 |

열람·복사

이용자 신분증 확인 - 열람신청서 작성(열람목적, 신청자료, 인적사항) - 담당사서에게 제출 - 담당사서가 자료 찾아 이용자에게 전달 - 북한자료실 내에서 열람·복사

대출

대출자격: 전임강사 이상 교수 및 교직원 대출권수/기간: 3책 / 30일 이내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 이용문의 | 제2도서관 1층 안내데스크 051-510-1303



「2012 올해의 책 한 눈에 읽기」

새하얀 눈이 수줍게 내려앉는 겨울입니다. 창문 밖에 소복히 내려앉는 눈처럼, 새하얀 이야기들이 가슴속에도 내려앉습니다. 2012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담긴 책 한 권은 무엇입니까? 올 한해 효원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책은 무엇일까요? 주제분야별로 가장 많이 이용된 도서부터, 부산대학교도서관이 선정한 '이달의 책' 까지 2012년 효원인과 함께한 책을 만나봅니다.

2012년 이용도서 1위는?

2012년 상반기에 이어, 올 한해 부산 대학교도서관 이용도서 종합 1위는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118회)로 나타났습니다. 이 책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흥미롭고 이해하기 쉽게 독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야별로 가장 많이 이용된 도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12년 1월부터 11월까지 대출통계를 기준으로, 듀이십진분류법(DDC)에 따라 주제별로 가장 많이 이용된 도서 베스트 10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제분야별 가장 많이 이용된 도서를 한자리에!

000 총류	(전문가를 위한) 고급 엑셀과 VBA 프로그래밍	김은정, 박성호 이한미디어 2012 255 p.
100 철학	철학이 필요한 시간	강신주 사계절 2011 346 p.
200 종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 쌤앤파커스 2012 287 p.
300 사회과학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부키 2007 383 p.
400 어학	Schritte international 1	Hilpert, Silke Hueber 2006 168 p.
500 자연과학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을유문화사 2010 543 p.
600 응용과학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쌤앤파커스 2010 318 p.
700 예술	미학 오디세이 1	진중권 휴머니스트 2003 325 p.
800 문학	천사의 부름	기욤 뫼소 밝은세상 2011 475 p.
900 역사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1	박시백 휴머니스트 2005 211 p.

부산대학교도서관 선정 '이달의 책'

부산대학교도서관에서는 지난 4월부터 매월 좋은 책 한 권을 교내 모든 효원인들과 함께 읽고 글을 써보는 '이달의 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을 함께 읽음으로써 효원인들이 지적·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2012년 부산대학교도서관에서 선정한 이달의 책! 우수독후감에 당선된 효원인들을 통해 만나봅니다. 우수독후감 수상자 명단 및 독후감 원본은 부산대학교 '책 읽는 대학 홈페이지'(http://pulip.pussan.ac.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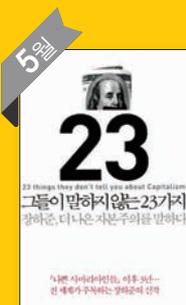


철학이 필요한 시간

강신주 | 사계절 | 2011 | 346 p.

나에게 이 책의 저자는 맨얼굴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한다. 꼭 고름을 빼기 위해 상처를 찢어내야 하듯이 맨얼굴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이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숨기고 내면의 세계로 파고들면 들수록 그 아픔은 짓물러지고, 썩어져갈 것이기 때문이다.

(김민아 건축학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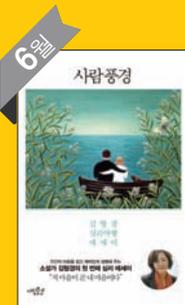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 부키 | 2010 | 367 p.

나는 장하준을 무척 좋아한다. 그는 우리나라의 고질적 병폐인 '자본주의 VS 공산주의'의 이분법적 담론을 뛰어넘어 일반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경제학 언어로 글을 쓰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가 가져오는 많은 병폐를 개선하고자 대안으로 제시되는 개혁안들이 이반공 이데올로기에 밀려 '빨갱이들의 선동'으로 취급당하는 현실 앞에서, 그는 가장 설득력 있게 제대로 된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 경제학자인 듯하다.

(정원석 지구과학교육학과 3)



사람풍경

김형경 | 사람풍경 | 2012 | 352 p.

인간은 본질적으로 늘 무엇인가를 욕망하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위에도 당사자의 욕망이 배제된 행위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타인에게 베풀었던 친절의 본질을 알게 되자 타인의 친절에 대해 특별히 감동하지도, 불친절에 대해서 서운해 하지도 않는다. 그저 내 마음이 조금 더 잘 보이니 세상이 조금 더 잘 보인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조현미 수학교육과 조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 | 쌤앤파커스 | 2012 | 287 p.

만약 당신이 지금 조금씩 달리고 있다면, 그래서 멈춰서고 싶은데 어디서 언제 멈춰서야 할지를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면, 나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당신에게 '조급증 치료제'인 이 책을 권한다. 멈춰서 쉬는 동안 힘을 얻게 된다면, 당신은 다시 달려갈 수 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안지영 경영학과 3)



한밤중에 잠깨어

정민 | 문학동네 | 2012 | 295 p.

이제 대답할 수 있다. 한 사람에게 빠진다는 건 그 사람의 삶을 느끼고, 공감하며, 알아가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쌓고 쌓이다 보면 이루어진다고 단호히 얘기하고 싶다. 나는 인간 정약용에게 흠뻑 빠졌다.

(이유한 화공생명공학부 3)



세상을 바꾼 과학논쟁

강운재 | 궁리 | 2011 | 282 p.

이 책은 과학지식 그 이상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과학은 과학자들만의 이야기,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며 내 주변사람들 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과학을 사회의 눈으로 보는 것,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 과학을 보는 나를 성찰하는 것,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사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과학의 민주화와 시민참여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정다영 영어영문학과 4)



광해군, 그 위험한 겨울

오형녕 | 너머북스 | 2012 | 371 p.

인물에 대한 개인적 감정으로 역사의 진실을 오해하거나 외면하면 안된다. 광해군의 업적에만 관심을 가져서 그를 대체역사로 생각하고 그의 불행만 동정해서 그의 잘못과 단점만 진실을 외면한다면, 결국 진실과 교훈을 보지 못하는 패배자가 될지 모른다. 소통하지 못한 채 잘못을 반복하다가 패배한 광해군처럼.

(한창민 한문학과 3)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권필림 | 토네이도 | 2012 | 340 p.

전 세계가 주목한 코넬대학교의 인류 유산 프로젝트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생생한 삶의 '현자들'에게서 들어보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인생의 지혜와 조언. 201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래된 미래로부터 나의 인생의 지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부산대학교도서관 추천의 글 ㉔)

01 독서치료프로그램, 직원까지 확대

도서관에서는 2006년부터 시작하여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참가대상을 2012년부터는 재학생에서 지역주민, 직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직원 대상 프로그램은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5회에 걸쳐 제1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마음의 상처, 책에서 치유의 길을 발견하다!'는 주제의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상항별(성장의 아픔, 성인아이, 자기존중, 치유와 성장)로 선정된 매체를 깊이 있게 읽고, 다른 참여자들과 정서적 체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직원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부산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재학생을 위한 2학기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9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금요일 8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도서관은 앞으로도 교내 구성원의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 제1도서관 문화교육팀 051-510-1863

02 '나를 일깨우는 인문학' 독서모임 운영



도서관에서는 10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격주로 제1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 '나를 일깨우는 인문학: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하는 책 읽기' 독서모임을 진행하였다. 전공이나 실용학문에 치우친 독서를 지양하고 학문의 기본인 인문학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폭넓은 세계관을 키우는 독서를 유도하고자 마련된 이번 독서모임에는 20여 명의 대학생과 4명의 강사가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2주에 한 권씩 총 4회에 걸쳐 인문학 분야의 책을 혼자 읽고, 전문가로부터 책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도서관에서는 2012년 1학기 '나를 일깨우는 과학책 읽기'를 시작으로 질 높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교양을 넓히고 독서영역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학기 독서모임 일정

일시 (오후 4시~6시)	강사	도서 정보
10. 24.(수)	국어국문학과 문선영	백석 시전집 송준 편 환당나귀 2012
11. 6.(화)	사학과 배해정	(처음 읽는) 여성의 역사 정한백, 김정안 공저 동녘 2011
11. 21.(수)	영어영문학과 류춘희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 지넷 윈터슨 저, 김은정 역 민음사 2009
12. 4.(화)	철학과 양창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나 아렌트 저, 김선옥 역, 정화열 해제 한길사 2006

문의 | 제1도서관 문화교육팀 051-510-1863

03 도서관 낭독회 '책 읽어주는 효원인' 개최



학생들이 참여하는 낭독회인 '책 읽어주는 효원인' 행사가 12월 20일(목) 제1도서관 1층 로비(구관)에서 열린다. '책 읽어주는 효원인'은 낭독회 공모에 선정된 학생 2명이 관객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선택한 책을 낭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낭독회에서는 강은비(식품영양학과) 씨가 '러브레터'라는 주제로 이와이 순지의 『러브레터』를, 박민섭(화학과) 씨가 '열정, 백년의 정열'이라는 주제로 산도리 마리아의 『열정』을 낭독할 예정이다. 도서관 낭독회는 2010년에

시작하여 올해 4회째 운영하고 있으며, 참가자들간에 따뜻한 감성을 공유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의 | 제1도서관 기획전산팀 051-510-1309

04 도서관 각종 안내사항,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설정 가능해져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안내 이메일 및 단문문자서비스(SMS)를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도서관 홈페이지(<http://pulip.pusan.ac.kr>) 에 로그인하여 'My Library > 개인정보관리' 메뉴를 통해 필요한 각종 안내사항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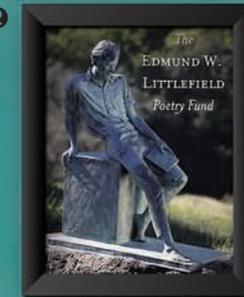
연체도서 알림, 예약도서 도착 알림, 원문복사 서비스 알림, 캠퍼스간 상호대차 도착 안내 등 이메일과 단문문자서비스(SMS)를 통해 제공되는 총 26개의 항목 중 이용자가 원하는 사항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알림사항을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 제1도서관 기획전산팀 051-510-1817

도서관 역사에 평생 기억될 고귀한 순간,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기부를 통해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대중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기관으로 도서관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이유 없이 아무것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오직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도우며, 사람을 결코 빈곤하게 만들지 않는다. 도서관은 큰 뜻을 품은 자에게 책 안에 담겨 있는 귀중한 보물을 안겨주고, 책을 읽는 취미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낮은 수준의 취미를 멀리할 수 있게 한다.

뉴욕공공도서관 설립에 기여한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Andrew Carnegie, 1835~1919)

도서관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PNU 도서관친구들' 프로젝트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문의
기획전산팀 | 박지영 051-510-1810

자료기증
자료개발팀 | 김명숙 051-510-7600

- 1 뉴욕공공도서관 벽면에 새겨진 기부자 명단
- 2 스탠포드대학교도서관에서는 기부자를 기념하기 위하여 개인의 출생, 기념일, 업적 등을 새긴 북플레이트(bookplate)를 도서관에 부착시키고 있다
- 3 하버드대학교 와이드너도서관(Widener Memorial Library). 하버드대생인 해리 엘킨스 와이드너가 타이타닉호 침몰 때 사망하자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기리기 위해 대학 측에 기부하여 설립한 도서관으로, 도서관 내 외부 벽면에 와이드너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